

\$



## ○ 오만 Omifco, 프로젝트 더 지연

문제가 되고 있는 Oman-India Fertilizer Company(Omifco)의 회계 마감이 현재 10월로 연기되었다. 인도측 두 파트너인 Kriskak Bharati Cooperative(Kribhco)와 Indian Farmers Fertilizer Collective(Iffico)가 각각 25%의 주식을 갖고 그 나머지 주식 지분을 가진 Oman Oil Company 사이에 이루어진 \$ 10억 규모의 이 합작업체는 165만톤/년의 요소와 250,000톤/년 암모니아 잉여물을 생산하는 쌍둥이 트레인의 암모니아/요소 공장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 구조는 2:1 부채, 자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인도측 파트너들은 각각 \$ 8000만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인도 당국은 요소에 대하여 15년간의 매입 혹은 지불 계약에 합의하였고 Iffco는 비슷한 암모니아 계약에 합의하였다. 현재 인도정부는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내주었으며 콘서시엄은 은행에 접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용자와 수출신용장 보증으로 또다른 \$ 3억2천5백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namprogetti와 1999년에 건설 계약을 맺은 Technip이 주도하는 콘서시엄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스케줄로 볼때 2002년 1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5년초에 공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인도네시아, Aceh주에서의 생산감소로 요소 수출 타격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Aceh에서 안전에 관한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Exxon Mobil의 육상 개스전들(Arun, Pase 및 South Lhoksukon)이 속속 폐쇄되면서 그 연쇄 효과가 비료를 포함한 down stream에 까지 미치고 있다.

//

Arun에서 가동중인 4개 LNG 트레인 중 하나만이 현재 가동중이며(다른 두 트레인은 줄어드는 개스 보유량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가동을 중단하고 뒤로 미루어 졌다) PT Asian Aceh Fertilizer의 60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이 오프라인 상태로 남아있다.

Exxon Mobil Oil Indonesia Inc는 점증하는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Aceh주의 South Lhoksukon, Pase 및 Arun에 있는 동사의 유정에서 석유와 개스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되는 불안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어 있는 PT Pupuk Sriwidjaja (Pusri) Holding으로부터의 PT Pupuk Kalimantan Timur(Kaltim)의 민영화가 또한 지연되었다.

Aceh의 생산 저하와 다른 공장에서의 운영난으로 내수시장의 요소 공급 불안정은 정부가 모든 국내생산자들에게 금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요소 수요량 약 450 -500만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우선권을 주도록 촉구하였다.

Kaltim은 Borneo(Kalimantan)에서 요소 22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영 생산능력 570만톤/년 중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 회사의 생산품이 수출되지 않도록 현장하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핀란드 Kemira, 구조개혁 지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유럽소재 기업운영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Kemira Agro는 네덜란드 Rosenburg로부터 300,000톤/년 질산공장을 벨기에에 있는 이 회사의 Tertre 현장으로 옮긴다. Tertre에 있는 기존 일부 500,000톤/년 질산공장은 환경상의 이유로 또는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폐쇄될 것이다. Tertre의 650,000톤 질산암모늄 공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전은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Kemira는 또한 쉬고 있는 Pernis 현장을 Van Bentum사에 팔았는데 이 회사는 공장을 분할하여 팔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천2백50만 유로화가 될 것이다. Kemira는 2001년에 3900만 유로화(\$ 3450만)의 손실을 보았다.

oo

Agro는 현재 동물사료용을 포함한 인산과 같은 몇몇 Kemira Chemical 사업을 포함하여 Kemira Agro Specialities 및 Kemira Agro Nitrogen으로 재편되었다.

Kemira는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 이 지역에서 질소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Kemira의 비료사업은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예상했던 것보다 2001년에 들어서서는 더 좋아진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Tauno Pihlkava 회장은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이집트 Semadco, Suez 질산암모늄 공장 개조

이집트의 El Nasr Company for Chemicals and Fertilizers(Semadco)는 스에즈시에 있는 동사의 질산암모늄 공장 리노베이션을 위한 입찰을 발주하였다.

이 공사는 공장의 생산량을 현재의 230,000톤/년에서 330,000톤/년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공사는 부분적으로 독일 대리점인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에 의하여 자금지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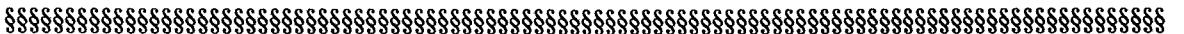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미국, 우크라이나 질산암모늄 덤플링 감축 제의

우크라이나 정부는 만일 미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비료 덤플링 조사를 중단한다면 대미 질산암모늄 수출량 한도를 낮추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지난해 러시아와 함께 질산암모늄 수입량 쿼터 100,000톤/년을 2004까지 150,000톤/년으로 끌어 올리려는 미국의 거래를 반영하는 것이다. The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113%의 반 덤플링 과다량이 우크라이나 질산암모늄 가격을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끌어오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에 대한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미국, 맹크검사 지침서 발간



The Fertilizer Institute는 대형 비가압 저저장탱크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는 새로운 탱크가 설계되어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표준 650에 맞게 건설되어야 하며 API 653의 바탕위에서 기존 탱크의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탱크는 매 9년마다 독립된 검사원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운영자는 매년 육안으로 검사를 해야하며 API 653 체크리스트에 따라 1년마다 검사를 해야한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베트남, 새로운 수입 규정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입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비료 수입규정을 변경하고 쿼터를 철폐하였다.

5월 1일부터 비료 수입을 허가받았거나, 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은 양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년까지 유효하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캐나다, Agrium 수익 상승

2000년 1/4분기에 \$ 400만의 손실을 본후 Agrium의 순익은 2001년 1/4분기에 \$ 700만이 증가하였다.

증가분은 부분적으로 알래스카에 있는 Kenai 비료공장 단지매입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Profertil의 조업에서 온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이란, Toyo와 요소공장 건설 계약 체결

The National Petrochemical Co of Iran은 Bandar Assaluyeh에 1,07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 1억9천5백만의 계약을 Chiyo와 국내 엔지ニア링 회사인 PIDEC가 포함된 Toyo가 주도하는 콘서시엄과 체결하였다.

이 공장은 Kellgg Brown & Root 암모니아 및 Stamicarbon 요소 기술과 Norsk Hyd

oo

-ro의 그래뉼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의 단일 요소공장 중 하나가 될 이 공장단지는 완공하기까지 39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러시아, Gazprom 주식 증대

가스 생산업체인 Gazprom은 비료 그룹 Kirovo-Chepetsk의 주식 22%를 확장하였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 대금지급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러시아 비료공업에서 주식을 늘려 왔다.

< Nitrogen & Methanol No. 252 July-August 2001 >

### ○ 미국 IMC, 국내 수요를 위해 중지했던 도널드슨 DAP 공장 가동

최근 상사 정보에 따르면 미국 IMC 글로벌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도널드슨 빌 DAP 공장의 생산에 대하여 2/3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추비의 거래를 앞두고 국내용 수요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IMC의 도널드슨 빌 공장의 DAP 생산은 지금까지 수요 완화와 시장 대책 때문에 전면 중단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추비의 거래를 커버하기 위해 라인의 1/3은 중지하면서 2/3는 생산을 재개할 방침인 것 같고, 양적으로는 150만톤 규모(년간)의 생산이 될 전망이다. 생산조정의 강화로 정지했던 도널드슨 빌 공장은 미국의 추비용으로 부분적으로 생산 재개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는 IMC에 국한하지 않고 카길과 PCS 등 큰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공급과 임과 가격하락 방지대책 등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조정 방침과 같은 궁지에 빠져 있었는데, 추비 시기를 맞이하면서 일부 공장은 생산조정 강화를 서서히 완화시켜 갈 것 같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7월 25일 >

### ○ 중국의 대외 요소수출 움직임

oo

이번 여름장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였던 중국 요소의 대외 수출 얘기는 지금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수출사업은 돌아오는 9월쯤부터 시작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과연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에는 요소의 대형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한 중국인 만큼 그 동향은 중요시 되고 있다.

중국은 요소 수출을 작년 중반쯤부터 국제시황의 상승을 기회로 국내 공급보다 수출이 득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여 양적으로는 70~80만톤 혹은 100만톤도 수출했다고 하며, 금년 들어서도 40만톤 정도는 수출 계약을 했다는 등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국내 시즌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하고 있고, 여름장쯤에는 또 수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일전에는 중국이 수출사업을 시작하여 바이어 측에 매매 의향을 제시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요소수출 사업에 관해서는 요즘 그다지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정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업계측에서는 “국내용 수요가, 기후면에서도 순조롭고 동시에 가격적으로도 국제시황이 낫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국내 공급면이 득책”이라는 등에서 수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해외용 요소의 동향은, 앞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이 9월 가을 초쯤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금년내에 W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역자유화·개방으로의 이행이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의 요소 수출 혹은 그 반대의 일도 고려되는 만큼, 중국의 요소 수출 문제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8월 13일 >

## ○ 인도네시아, 요소 수출 아시아로만 국한될 전망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인 아세안 자체는 앞으로 요소 생산 재개를 해도 아시아 시장용 이외에 네내 중 대외 수출은 곤란 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oo

국내용과 함께 아세안제국과의 합병 제조업체인 관계로 수출에서는 먼저 아세안용을 우선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주에 있는 미국계 기업 엑슨모빌은 동 주의 치안악화를 이유로 천연가스의 채굴을 중지했다. 그래서 요소 제조업체인 아체와 에스칸달무다는 원료 입수난 때문에 생산 중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도 있어서 엑슨 모빌은 7월에 천연가스 채굴을 재개하고 생산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 기업으로 가스가 인도에 들어가게 되고 아체 등도 8월 상순 이후에는 원료 입수로 요소 생산을 재개한다는 전망에 있었다. 그러나 이 아체의 요소 생산에서는 국내 수요용 공급에다 아세안 제국용 납품이 제일 우선으로 주어져서 이 이외에는 즉각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여져 넌내 중에는 대외적 수출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세안 아체의 요소를 매입하고 있는 관계업자들은 부득이하게 잠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바꾸어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요소 생산과 대외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7월 31일 >

♣ 모든 일은 어려울 고비를 넘어야 허위진다.

< 끝 >